

김승수, 새해 첫날 창업기업 방문

(전주시장)

탄소융합부품소재 창업보육센터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 · 1일 직원 · 증축공사 현장 방문

전주시가 창업기업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것을 시작으로 2018년 1월 2일 새해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2일 사무실을 대신해 팔복동 탄소융합부품소재 창업보육센터를 방문, 향후 지역경제를 이끌어갈 예비 핵심 기업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으로 2018년 희망찬 한해를 열었다.

김 시장은 이날 탄소부품소재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13개 창업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창업초기 기업현장의 애로사항 등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찾아 나설 것을 약속했다.

김 시장은 또 더엔드컴퍼니와 성진에어로 등 창업기업 2곳을 방문해 1일 직원을 자처해 직접 드론을 조립해보는 등 주요공정을 직접 경험하고, 함께 작업한 직원들의 탐과 열정에 대해 격려했다.

이어, 김 시장은 현재 증축공사가 진행 중인 탄소융합부품소재 창업보육센터 공사현장을 찾아 창업초기 기업들이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어가는 공간을 더욱 넓혀 기업 성장을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탄소융합부품소재 창업보육센터는 시가 창업 후 3년 미만이거나 탄소복합재, 경량화소재, 기계산업분야 등의 주력산업 분야의 예비창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구축한 공간으로, 현재 17개 창업기업이 입주해 저마의 꿈을 키우고 있다.

시는 그간 작업공간이 부족해 한정된 공간에서 제품연구를 해야 했던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수렴 현재 기존 2층이었던 건물을 3층으로 증축하고 창업공간 11곳을 추가로 늘리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2일 사무실을 대신해 팔복동 탄소융합부품소재 창업보육센터를 방문, 13개 창업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찾아 나설 것을 약속했다. 또한, 더엔드컴퍼니와 성진에어로 등 2곳을 방문해 1일 직원을 자처해 직접 드론을 조립해보는 등 주요공정을 직접 경험하고, 함께 작업한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와 관련 시는 전주 사람, 생태, 문화와 따뜻한 일지리가 있는 가장 인간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해 김승수 전주시장을 포함한 시 공무원들이 연중 기업현장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해 침체에 빠진 산업현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기업 기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는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자금과 판로, 투자 등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즉시 해결해주는 기업애로솔루션 전담반을

가동하고, 창업초기 신생기업의 생존률을 높이기 위해 창업기업을 집중 방문하고 기업지원책을 안내하는 '창업기업 집중 기(氣) 살리기 인큐베이팅'도 추진하는 등 기업 기 살리기 프로젝트를 업그레이드시킬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주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물품구입부터 제도개선까지 불법을 뺀 모든 방법을 동원해 기업의 기를 살려 침체에 빠진 산업현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기업 성장이 시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든다는 구상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이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열쇠는 중소기업의 성장과 육성이다. 창업기업을 안정적으로 키우고 꾸준히 지원해 자칫만 세계에서도 통하는 독일형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과 함께 소통해 나갈 것"이라며 "2018년 새해를 여는 출발점에서 만난 창업기업의 탐과 열정을 마음으로 새기겠다. 또한, 올 한해 그들의 탐과 열정을 늘 기억하고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채규남 기자

익산시 공무원 '과로'로 사망

故 이용연 안전행정국장, 쓰러져 치료 중 숨져

익산시에 재직중인 이용연 안전행정국장이 지난 12월 17일 과로로 쓰러져 치료중 1월 1일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故이용연 국장은 지난해 7월 기획예산과에서 안전행정국장으로 승진한 이후 6개월간 주말에도 쉬 틈 없이 굼직한 시 현안업무 해결에 매진해 왔으며, 쓰러진 전날까지도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본예산을 지키기 위해 발벗고 뛰어다녔던 것으로 알려져 더욱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특히 2017년 하반기는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방문, 2018년 본예산 편성 및 지방의회 협의, 익산시 30만 인구 지키기와 신주기 기념행사 등 현안업무가 산

적해 있어 여느해 보다 바빴던 한 해로, 이에 따라 주무국장으로서는 업무 강도와 피로도가 상당히 높았을 것이라 전해진다.

청원들에게는 따뜻한 말 한마디 큰 오히려서 격이 없는 대화와 업무지도로 평가가 높았던 이국장의 소식은 익산시청 공무원들에게 크나큰 충격을 주고 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故이용연 국장은 평소 지병 없이 건강한 체질이었으나 최근 굼직한 현안업무 추진과 관련한 피로누적을 지인들에게 수시로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투철한 책임감으로 어떤 업무에도 열정을 갖고 추진했으며, 금번 병원 투병중임에도 업무격정이 끊이지 않았는데 안타깝다"고 전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시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의회 실현 다짐

전주시의회, 신년인사회 개최

전주시의회는 2일 시의원과 사무국 직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신년인사회를 개최하고 새해에 시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시의회를 만들어 나가자고 다짐했다.

김명지 의장은 신년사에서 "새해를 맞아 묵은 것을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해의 마음으로 더 큰 역사와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2018년 무술년에도 지역의 희망을 발굴하고 시민의 꿈을 지원하는 든든한 동반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시민에게 믿음을 주고 신뢰받는

의회로 도약하자"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지난해 말 전주시의회가 전국의 청렴도 측정에서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안아 시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드린 만큼 새해에는 뼈를 깎는 자성의 노력으로 주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선진지방을 향한 변화와 혁신 속에 완전히 새로운 전주시의회로 거듭나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는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어느 해보다 바쁘고 분주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에 충실하며 시민 편의 행정과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채규남 기자

고준희양 친부 내연녀, 시신 유기공모 인정

유기 8개월 뒤 실종신고 한 이유... 고모씨와 이모씨 결별 때문

친부의 내연녀가 고준희(5)양 시신을 유기하는데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다.

2일 전주지검경찰서에 따르면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내연녀 이모(36)씨가 전날 진행된 면담 조사에서 "준희가 차량에서 죽은 것을 목격하고 시신을 유기하기로 공모했다"며 자백했다.

경찰은 "범행을 이씨와 공모했다"는

고모(37)씨와 이씨 어머니 김모(62)씨의 진술을 확보해 이씨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그간 이씨는 "시신 유기 사실은 전혀 몰랐다. 경남 하동으로 가족 여행을 갔을 때 알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날 조사에서는 준희양 유기 뒤 8개월이 지난 12월8일 실종신고를 한 이유가 고모씨와 이모씨의 결별

때문인 것도 밝혀졌다.

지난해 4월 27일 준희양을 유기한 뒤 다름이 잦던 두사람은 결국 이씨는 준희양이 실종됐다고 신고한 지난 11월18일 완주군 봉동읍 고씨의 아파트에서 집을 싸들고 어머니 김모씨의 집으로 갔다.

하지만 결별 뒤 이들 사이에 남아 있는 준희양 사망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지난해 12월8일 만났고 입을 맞

춘 뒤 실종신고를 한 것으로 전했다.

20일이 지나 신고한 이유에 대해서는 "서로 싸운 뒤 떨어져 지내 준희를 서로 돌보고 있는 줄 알았다"고 변명했다.

고씨는 이 자리에서 "발을 찾아달라"고 고성을 지르며 오열하고, 직장 동료들에게 전단을 돌리는 등 연기를 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씨와 이씨가 이별한 뒤 준희양 문제를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굳이 사건이 밝혀질 위험을 감수하고 실종신고를 한 것 같다"면서 "결별하기로 만난 날 입을 맞추고 연기까지 했지만 결국 유기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전북소방-전주지검, 화재 취약 시설 합동안전점검

전북소방본부와 전주지검은 화재 발생 빈도가 높은 겨울철을 맞아 오는 22일부터 닷새 동안 노인 요양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합동 안전점검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이들 기관은 최근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 화재에서 문제가 된 필로티 주차장 등과 관련,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진단하고 대책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비상구 파단, 통로 장애물 설치 및 폐쇄 여부, 소방시설 정상작동 여부 등도 집중 점검한다.

점검은 이번 점검을 통해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자를 입건하는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할 방침이다.

아울러 건물 관리인 등에게 화재 발생 시 화재 통보 및 피난유도를 비롯한 화재 초동 대응요령에 대한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최근 충북 제천의 대형화재 발생 후 실시되는 이번 점검은 화재에 대한 경각심과 자율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며 "사전 점검을 통해 화재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삼민 기자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서부신시가지 도청영**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덕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